

國語科 話法 教育의 문제점과 새로운 方案*

方 仁 泰**

〈차 례〉

- I. 序論
- II. 現行 話法 教育의 問題點
- III. 話法 教育의 새로운 方向
- IV. 文化生産 話法 教育의 概念과 原理
- V. 文化生産 話法 教育의 方法
- VI. 結論

I. 序論

‘말하기’와 ‘듣기’로 그 이해와 표현의 측면을 별도로 구분하여 부르는 話法은 국어과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¹⁾이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법 교육은 여러 문제를 현행의 교육과정 하²⁾에서 노출하고 있다. ‘말하기’ ‘듣기’라는 영역의 명칭도 문제가 있고, ‘말하기’와 ‘듣기’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方仁泰, 2001c : 307)

* 본 연구는 2003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과교육공동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임.

** 서울 敎育大學校

- 1) 화법에 관한 영역이 오늘날처럼 국어과의 중요 영역이 된 것은 미군정기의 교수요목기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미국식 언어 교육의 영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개화기나 일제 시대에는 이러한 영역이 없는 것으로 보면 그러하다.
- 2) 교수요목기부터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해당된다.

더구나 화법 교육이 실용성을 중시한 나머지, 일상적인 대화나 개인간의 말하기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³⁾ 이처럼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법 교육은 실용적 화법을 指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화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롭게 제시하려고 하는 화법 교육의 방향은 개인간의 대화와 인간 관계 중시의 實用 生活 화법⁴⁾에서부터 문화 창조의 기틀을 만들고 문자 생산을 위한 文化生活 중시의 화법이다. 또 이 화법은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話用力 향상 교육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할 話法은 집단을 상대로 한 개인적 말하기인 演說과 정해진 議題와 論題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討議와 討論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여러 集團間의 수많은 갈등은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고 원만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용력 중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토의와 토론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배양된 사고와 의식은 문자 문화 생산(方仁泰, 1999, 2001a)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화법 교육은 演說과 討議, 討論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말하기와 對話 화법 부문은 가정과 사회로 그 교육적 역할을 넘기고, 학교에서는 대중 화법의 演說과 토의, 토론 중심의 集團 화법(이창덕 외, 2000 : 291, 323, 363)교육에 치중하여야 한다.

- 3) 제7차 교육과정의 1-10학년(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까지 화법의 경우, '말하기' 영역의 내용 체계 중에서 실제로 해당하는 기본과 수준별 학습 활동을 보면, 모두 54 개 중에서 연설은 3개, 토의/토론은 9개뿐이다.(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1998)
- 4) 화법에 관한 論究로는 이용백·이주행(1992), 이옥련·민현식 외(1996), 전영우(1987, 1998), 이창덕 외(2000) 등이 있는데, 화법의 본질과 유형, 실제 등을 다루고 있으나, 화법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또 화법 교육에 관한 저술로는 조문제(1996), 전은주(199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2001) 등이 있으나, '말하기'와 '듣기'로 영역을 설정한 현행 교육과정과 같은 인식 하에서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법을 다루고 있다. 특정 화법 유형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으며, 양자의 화법에 관한 기본 인식이 필자와 다르므로 그 교육 방법에서도 구별될 것이다.

II. 현행 話法 教育의 문제점

'말하기'와 '듣기'란 용어는 성질을 뜻하는 명칭이 아니다. '말하다'와 '듣다'의 동사를 명사형으로 쓰고 있는 이 용어는 행동을 나타내는 기능상의 용어인데, 내용상의 性質 중심의 명칭 사용과 비교하여 보면 문제가 있다. 예컨대, '문학'이나 '국어지식'처럼 학문적 명칭이나 내용별 성질이 아니라, 행동과 기능 중심의 용어는 다른 영역의 명칭과 비교하여 얼마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읽기'와 '쓰기' 또한 마찬가지다.(方仁泰, 2001a : 56-57) 이것은 미국의 speaking과 listening의 譯語일 뿐이지, 영역의 성격에 적합한 명칭은 아니다.(方仁泰, 1998 : 67) 그러므로 이러한 번역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 사용하는 영역 명칭인 '화법'을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용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단계의 심화 과정에서 화법에 대한 성격과 개념이 초등학교와 같다면 명칭도 동일해야 할 것이다. 왜 초등학교의 영역 명칭하고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끝난 뒤의 선택 심화 과정의 명칭이 달라야 하는가 ?

화법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상호 작용 행위이다. 말하고 듣는 화법 행위는 전언의 내용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것 이상의 언어 사용 행위이다.(고등학교 교육과정(1) : 1 998 : 52)

교육과정에 보면 화법에 대한 교과와 성격 규정은 위와 같다. 이것은 초등학교의 소위 '말하기/듣기'와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그런데 다른 예로 초등학교에서는 '미국말' 또는 '영국말'이라 붙이고, 심화 과정에서는 '英語'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옳은 명칭인가? 이렇게 영역 명칭을 분리해서 달리 붙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어떠한 언어 활동 일지라도 기본 과정 다음의 심화 단계를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할 필연성이 없으므로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方仁泰, 2001c : 307) 이와 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領域 名稱의 문제는 바로 영역 구분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화법을 ‘말하기’와 ‘듣기’ 두 개의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言語(音聲)(方仁泰, 1999 : 138)의 경우에 그 성격상 표현과 이해의 측면에 의한 구분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문적인 성격의 구분과 교육을 위한 성격의 영역 구분은 구별해야 한다. 文字와 달리 말하기의 표현과 말듣기의 이해는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그것의 실행인 話行을 문제 삼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言行的 활동은 표현과 이해가 분리되어 실현되지 않는다. 언행은 視空間의 동시적 실행이지만 학문적 논의나 그 본질적 성격은 분리하여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와 듣기의 實現態를 문제로 삼을 때는 분리하여 따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그 실제의 현상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그 기능별 본질을 기준으로 실행태와 달리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기능을 함께 다루고 그것을 포괄하는 명칭과 영역을 話法으로 통일하고, 그 교육적 실재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법 교재 체계상에도 역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화법은 본질적으로 동시에 교육(方仁泰, 2002b : 311)하고 그 활동을 통해 기능의 신장을 꾀해야 하는데, 효율성과 실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自國語 학습에 外國語 학습법을 무분별하게 도입(方仁泰, 2001a : 48-49)하여 교재를 분리한 것이다. 초등의 경우에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이 둘을 분리하여 교재 체계에 반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은 현행 제 7차 교육과정까지 지속되고 있다. 화법 성격상의 기능별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교재 체제상에 별도의 용어로 구별하여 교재를 分冊하여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더욱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처럼 어떤 영역의 중심 활동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교재를 그 영역으로 구분하여 分冊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더욱 크다. 현행과 같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통합하고, 그 활동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은 현행의 중학교/고등학교에서처럼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성장 발달로 보면 통합에서 점차적으로 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교과별 통합은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법의 이해와 표현을 별도의 영역 명칭으로 삼거나, 기능 신장이 근본 교육 목적이 아닌 국어지식과 문학과 달리 '말하기'와 '듣기'를 교재의 체제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 교재 구성에서 함께 습관으로 편제한 것에서도 그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기능별 분리 인식은 결국 교수/학습의 경우에도 유용하지 않다. 왜냐하면 화법의 기능상 두 측면은 언제 누구에게나 동시적 동일한 공간의 상황이므로 분리하여 교수/학습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기(方仁泰, 2002b : 311) 때문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敎科學의 관점에서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직 둘을 분리하여 기능별 숙달을 목표로 삼아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교수/학습의 상황에서는 話者和 聽者의 동시 共存이 필수적인 話行의 조건이다. (이창덕 외, 2000 : 31) 따라서 敎授者和 학습자의 분리가 실제의 상황에서 불가하듯이 화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더욱이 한쪽 기능을 분리하고 독립된 기능을 반복 훈련하는 것을 제외한,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화법 교수/학습을 수행할 때에 기능별 영역 분리는 문제가 적지 않다.

나아가 화법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별도의 기능으로 분리하여 그 기능별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고 할 때도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 쪽 기능만을 분리하여 평가의 場에 불러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법 지도에서 表現 측면의 技能을 평가한다고 해도 반드시 청자를 필요로 하듯이 理解의 경우에도 반드시 화자가 동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자와 청자의 同時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현실적 상황이라면 별도로 분리하여 측정하거나, 그 기능의 성취 정도를 재는 것은 언행의 실재를 想定하면 무의미하다. 텅 빈 공간에서 녹음기에 의한 聽取 능력이나 녹음을 통한 發言 능력의 측정은 가공된

평가를 위한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상황일 뿐, 실제 話行 장면과는 동떨어진 非實際的인 상황이므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는 실제 話行 장면과 연결되지 않는 공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점은 화법 評價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Ⅲ. 화법 교육의 새로운 방향

주지하는 대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화법 교육은 실용성 중심이다. 그러나 이제는 실용성 중심에서 文化性 중심으로 변화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21 세기는 문화가 삶의 핵심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지향점도 문화생활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方仁泰, 1999 : 139-140) 그런 면에서 화법 교육도 문화 생활이 중심이 되는 화법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화법에서는 對話보다 演說을, 집단 화법에서는 討議보다 討論이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상 생활을 위한 대화 중심의 실용적 말하기에서, 문화생활을 위한 독자적 談論 생성을 위한 演說로, 집단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와 문화적인 담론 생산을 위한 討論 중심의 화법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화법 활동은 思考의 論理性을 강화하고, 실제 話題의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모색을 가져와 더욱 가치 있는 문화생산(方仁泰, 1999 : 147)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화법의 목적도 關係 목적의 화법보다 話行 목적의 화법(이창덕 외, 2000 : 9)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의 생산으로 이어져 우리의 문자 문화의 발달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는 대화와 연설, 토의와 토론, 면담의 모든 화법을 羅列式⁵⁾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적 실제 특성에

5)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선택)의 '화법' 교과영역별 내용 중, "화법의 실제"를 보

맞는 분야만을 엄선하여 그것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온당한 방향이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의 임의적이고 자연스러운 화법 교육과 조화되어 실생활의 화법이 문화인의 교양 화법, 교양인의 文化的 話法の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의 淺薄하고 경박한 화법, 코미디언이나 개그맨 식의 화법이 橫行하고, 실행과 동떨어진 責任 回避의 辨明과 말장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법 교육의 지향이 더욱 확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일찍이 孔子가 언급한 正言의 세계가 실현되어, 말이 그 말대로 바로 잡히고 말에 맞는 사회가 될 때, 참다운 문화 선진국의 실체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허한 말이 사라지고 말이 갖는 본연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빛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傳統 文化와 언어/문자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화법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식 언어 교육의 移植을 통한 국어 교육이 아니라, 한국식 언어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하나의 대안은 문자 교육 중심의 국어교육, 문자 문화 생산을 지향한 국어교육(方仁泰, 1999 : 147)이다. 이것은 기존의 언어 사용 기능 중심의 국어교육에서 문자 생산 능력 향상의 국어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어교육이 현재의 일상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圓滑을 그 중심 話頭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의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화법 교육은 文化的 觀點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이처럼 문화의 觀點에서 바라볼 때 중시해야 할 화법의 내용은 개인의 일상적이고 실용적이며 소비적인 의사소통 중시의 화법이 아니라, 사회의 집단적이고 문화적이며 생산적인 價值 중시의 화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실제적인 활동에서 보면 演說과 討論이 그 중심이 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면,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면담'의 5개의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말하기'와 '듣기'에서 실제 부분의 기본과 심화 내용은 화법의 유형에 따른 구별과 위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 나열하고 있다.

IV. 문화생산 화법 교육의 개념과 원리

국어과 교육이 문자를 통한 문화생산을 지향해 나갈 때, 言語(音聲)도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길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생산에 직접 작용하는 文字보다 言語의 역할이 간접적이고 미약하지만, 문자와의 관계에서 相互 照應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方仁泰, 2001c : 298) 그런 관점에서 보면 言語는 文字 활동의 觸媒劑 역할을 하거나, 事前에 준비하기 위한 質料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일반적인 機能인 意思 疏通과 親交의 機能은 문화생산을 위한 언어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附隨的인 것이다. 또는 실용의 차원을 넘어선 자리에 문화생산이 존재하므로 문화생산을 위한 언어교육은 문자생산을 위한 것과 문자생산의 예비적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물론 口碑文學처럼 언어를 통한 문화생산의 역할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科學 機資材의 발달로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발달하여 문자와는 다른 樣相을 띠지만, 記錄性和 保存性이 상당히 好轉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의 문화적 가치와 수준을 고려하고 그 精練度를 다룰 때는 문자에 견주어서 未洽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화생산을 위한 경우에 언어는 문자의 補助 역할에 불과하지만 언어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喪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어교육이 그 實用性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문화생산을 지향하는 교육이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실용적인 의사 소통,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의 충실한 목표를 달성한 뒤에 그것을 넘어서는 교육을 지향할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相衝되는 것이 아니라 相乘의이고 相生的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실용적인 언어교육과 문화생산 언어교육의 바람직한 관계도 바로 上昇的으로 相生的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기에 참다운 의미에서 문화생산을 위한 언어(음성)교육이 있고 그 가운데 話法 교육이 바로 文字教育과 相生的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생산 화법 교육은 바람직한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법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

용과 방법을 말한다. 결국 문자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조금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이 화법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의 내용이 독자성을 띄어야 하고, 그 내용의 조직과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한다. 물론 표현도 신선하고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理想的인 話法은 말한 것을 文字로 옮기면 文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 화법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은 文化生産 화법 교육이라 할 수 있다.

文化生産 화법 교육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리에 근본을 두고, 이 원리에 따른 실천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문화생산 언어교육(方仁泰, 2001c : 299-302)의 원리⁶⁾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원리는 論理性, 批判性, 創意性의 셋이다. 이 세 원리는 바람직한 문화생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思考의 토대로서, 話者가 발언을 하거나 聽者가 경청할 때에 함께 요구된다.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거나 우선되는 것이 다소 다를지라도 文産을 위한 화법에서 기반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論理性의 원리는 사고 자체의 논리를 말하는데, 문산 화법에서 먼저 강조할 것은 사고의 논리성이다. 논리가 없는 사고라는 것은 말 자체의 논리뿐만 아니라, 그 사고의 내용에도 관련된다. 이것은 話題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고가 합리성을 갖추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6) 첫째, 事實과 正確의 原理이다. 事實 原理은 정보와 意思의 資質에 관한 것이고 正確의 原理는 理解에 관한 것이다. 事實은 發話者의 觀點에서 表現할 때 지녀야 할 것이라면, 正確은 聽取者의 處地에서 理解할 때 필요하다. 둘째, 眞實과 傳達의 原理이다. 人間의 언어 소통은 事實을 바탕으로 發話者의 내면에 있는 眞實을 正確히 傳達하는 것이 그 다음에 추구할 본질적 문제이므로 기본 원리가 된다. 셋째, 迅速과 記錄의 原理이다. 언어는 시공간에서 일회적이고 순간적으로 傳播되는 屬性이 있다. 이러한 언어의 時間적 消滅性과 空間적 制限性을 補強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文字를 이용한 記錄이 동반하지 않으면 그 시공간성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補完하기 어렵다. 이것은 話題를 기록하여 보다 精練시키고, 聽取하면서 기록하게 하여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

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논리를 갖추어야 하고, 그것의 표현도 논리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논리가 없거나 논리가 부족한 말은 말 자체의 내용에도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청자에게도 설득과 동의 를 받아낼 수 없다. 이 논리를 갖춘 사고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서도 역시 논리는 필요하다. 화자의 발언이 논리를 갖추었는가를 분석 하고 확인하면서 듣는 것도 聽者가 갖추어야 할 기본 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화법의 원리에서 논리적 사고는 화자와 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원리인 것이다.

비판성의 원리는 話者나 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원리라기보 다는 청자에게 주로 요구되는 원리이다. 청자는 화자의 발언이 논리적 인 사고인가를 주시하고 분석하면서, 그에 합당한 비판적인 사고를 동 반해야 한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화자의 발언을 경청할 때, 청자 에서 화자로 전환하여 가치 있고 독창적인 사고를 전개하여 發言의 바 탕을 마련할 수 있다. 청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비판성은 화자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논리를 세워 비판적으로 발언 할 때 역시 요구되는 원리이다. 청자에게 보다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되 지만, 화자의 경우에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사고를 비판하 여 자신의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의 창의성의 원 리가 요구된다.

創意性은 최종적으로 話者에게 요구되는 원리이다. 논리를 갖추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형성된 화제가 창의성을 갖추어야 가치 있는 화제가 된다. 演說을 하거나 討論을 할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달리 창 의성을 갖춘 화제나 論題로 발언할 때 더욱 가치 있는 발화가 될 수 있 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이다. 청자는 화자의 發言이 창의적인 사고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하거나 평가하여 자신 의 발화로 전환할 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창의적 사고는 특히 가 치 있는 문화생산을 위한 화제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창 의성을 갖추지 못한 사고, 이것이 동반되지 못한 발언은 가치가 없고 文庫에 기여할 바가 적거나 없다. 그러므로 창의성의 원리는 문산 화

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機能한다.

V. 문화생산 화법 敎育의 방법

문화생산 화법 敎育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 요체는 어떻게 지도하면 화법을 통하여 가치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하는가에 귀결된다. 가치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사고를 해야 하고, 독특하고 보편적인 경험을 살려야 한다. 그러한 것을 글로 완성하고 그와 관련된 능력과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화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화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실천적 方策이 있을 수 있다. 화법의 능력인 話用力은 청취와 발화가 동시적 상황이므로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方策을 제시하고, 문화생산 화법의 핵심 내용인 演說과 討論에 관한 方策도 아울러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다. 연설과 토론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향상된 화법 능력은 문자의 표현과 기록으로 전이되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생산하고 발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진정한 의미의 화법 敎育의 의의가 있고, 본고가 지향하는 문화생산을 통한 문화 창조, 高品質의 문화생활의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는 발화지도와 청취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方仁泰, 2001c : 302-306), 발화지도에는 말하기를 글로 연결시키고, 獨自的 意思 形成을 지도하며, 再話에서 創話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청취지도에서 말듣기는 말하기를 同時에 지도하고, 批判的이고 自主的으로 듣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文産의 화법을 지도하는데 일반적인 실용 화법을 바탕으로 삼아 그것을 넘어서야 하므로 먼저 이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생산을 위하여 강조해야 할 화법의 유형으로 본고에서 個人 화법으로 演說과 集團 화법으로 討論⁷⁾의 지

7) 討論은 새로운 화법 敎育 方策에서 중요시해야 할 분야이나, 문화생산의 관점에서

도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다.

1. 문화생산 화법의 지도 방법

1) 傾聽하며 發言하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듣는 일이 앞선다. 말을 잘 들어야 말을 잘 할 수 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능한 그대로 들은 대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 단계는 메모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 메모하지 않을 때는 한 문장 말하는 것을 듣기부터 문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듣게 하는 것이 있다. 한 문장 듣기, 두 문장 듣기, 세 문장 듣기, 네 문장 듣기, 다섯 문장 듣기, 다섯 문장 이상 듣기, 한 문단 듣기, 두 문단 듣기, 세 문단 듣기, 세 문단 이상 듣기가 있다. 이것은 타인의 말을 들을 때의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들을 때의 集中力은 경청 능력을 키우게 되고, 이것은 자신이 화자로서 말하게 될 때의 능력으로 전이된다. 경청 능력은 타인의 말을 들을 때에 필요한 능력이지만, 타인의 말이란 청자에서 화자로 전이할 때의 바탕이 된다. 화자가 말하는 것은 청자의 말에 대한 반응이지만, 그 반응에는 話者의 말에 대한 同意와 否定, 그 내용의 受容과 變容, 일부와 전체 내용에 대한 追加와 削除, 또 그 화자가 말한 내용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수용하여 형성된 스키마가 있다. 이것은 바로 청자에서 화자로 역할을 轉位하여 말할 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청자에서 화자로의 전환에는 경청하는 능력과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므로 청자에게 화자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은 화자의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前提 능력이 된다.

경청하며 발언하기의 다음 단계는 들은 것을 메모하면서 듣기가 있다. 메모하기는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서 듣기가 있고, 자신의 의견을

볼 때 독자적인 가치면에서 미흡하여 구체적 방책 제시는 제외한다. 그렇지만 화법에서 토의 자체의 가치에 의문을 품지는 않는다.

추가하면서 듣기가 있다. 메모하면서 화자의 말한 내용을 중요한 순서와 중요도를 판정하면서 메모로 기록하는 일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사고를 축적하면서 스키마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형성된 스키마는 화자가 말을 하는데 기본 자원이 된다. 이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말을 듣고 말하기는 화법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말하기의 방법이다.

2) 經驗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경험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신체적으로 직접 겪은 경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은 학습자가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지어 화제로 선택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상 생활을 통해 겪는 경험 중에서 화제로 선택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選別하여 發言하고 경청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화제를 풍부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풍부한 화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일이다.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야 화제 거리가 풍부해져 말하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각자 사람들은 서로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므로 겪게 되는 경험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험은 청자에게 새로운 것, 獨立的인 경험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청자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므로 그 나뭇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화제로 하여 발언하게 하면 화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므로 화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말한다. 다만 그것이 청자의 관심과 흥미에 조화되도록 그 내용을 조절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調節의 방법을 가르치고 技能的으로 익숙하게 연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신과 다른 경험이므로 청자의 경청하는 자세도 역시 요구된다.

3) 思考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이 방법은 어떠한 主題(話題)를 사전에 제시하고 그 화제에 대해서 그 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스키마로 활용하여 사고하게 한 뒤에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의 主 目的은 사고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사고

력 향상을 목적으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사고가 언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화하지 않은 사고는 생산적 사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思考가 성숙하기 위해서 일정한 화제에 대해서 자신의 스키마를 동원하여 그것을 조리에 맞게 정리한 뒤에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화제를 選定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용이하게 사고할 수 있는 것, 쉽게 일반적으로 경험하였거나, 사고와 상상의 振幅 안에 있는 화제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가 생각을 잘 펼칠 수 있는 화제를 정하는 것이 이 방법의 관건이다. 화제를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位階에 따라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등등의 順次性과 難易度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습자의 사고 발달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4) 讀書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경험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신체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은 개인적인 편차가 넓고 특수성이 많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은 독서 경험이다. 이 독서는 교육상 여러 방면에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취급하는 知的 경험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책을 읽고 讀書後 감상문을 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독서 지도⁸⁾이다. 이러한 독서 지도를 포함해서 화법 교육에서 화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책을 읽고 말하기는 바로 책을 통한 話用力 향상의 방법이다. 넓게 말하면 독서 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 교육에서 독서한 뒤에 讀後 활동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언어적 독후 활동으로 말하기를 시킨다. 이것은 독서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러한 讀後 활동의 목적은 독서 능력의 향상에 있다. 하지만,

8) 이와 달리 문화생산을 위한 독서를 위해서는 讀書創作文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方仁泰, 2001b)

화법 교육에서 책을 읽게 하고 말하기를 시키는 것은 화법 능력, 화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다시 말하여, 독서 교육에서 독서후 말하기는 독서 그 자체에 학습의 초점이 있다. 그러나 화법 교육에서 독서후 말하기는 그 發言에 초점이 놓인다.

이 방법은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말하기의 資料的 빈곤을 느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독서를 통하여 涉獵하게 하고 그것을 말할 거리로 삼게 하는 것이다. 책은 학습자의 독서 수준과 능력,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소재를 다룬 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험 사실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독서의 효과도 미약하고, 그럼으로써 말하기에도 부족함을 느낀다. 학습자의 일반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圖書를 선택하여 읽게 하고 이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켜 再構成하게 한 뒤에 말하기를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초기의 단계는 책의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의 분량을 적절하게 제한하여 부분적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 그 능력의 향상과 성취의 정도에 따라 분량을 점차적으로 늘여 나갈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가 있다. 중요한 핵심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여 발전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책을 읽고 말하기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책을 이용하여 話用力을 향상시키는 이 방법은 독서 지도와 함께 병행할 수 있어 유용한 국어과 교육의 統合的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지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讀書 지도도 될 수 있고, 話法 지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가 학습을 시행할 때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야 그 방법과 실제상의 활동의 강조점이 다르게 된다. 讀書 지도가 목적일 때는 讀解 자체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지도해야 할 것인 반면에, 話法 지도가 목적이라면 말하기의 방식과 말하기의 능력 향상에 보다 학

습의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5) 발언하고 경청한 것 文字化하기

문화생산 화법에서 중시할 방법은 말하고 들은 것을 글로 옮기며 다시 정돈하게 하는 것이다. 글로 남겨야 그것이 문화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資源⁹⁾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하고 논의한 방법은 일반적인 실용적 국어교육의 화법 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주로 내용 선정과 관련된 방법들이다. 말할 내용을 선정하는데 문산 화법 교육과 실용 화법 교육은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말할 내용의 선정 다음의 내용 조직도 동일하다. 표현의 과정도 별로 다를 게 없다. 말하고 들은 것에 관한 화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현재의 말하고 들은 것을 글로 써보게 하는 방법은 문산 화법만의 독특한 방법이고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말하고 들은 것을 文字로 정리하여 記錄으로 남기는 일은 문화 생산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산 화법 교육은 실용 교육의 방법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그 문화생산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용적 話用力이 바탕이 되어야 문화적 화용력이 그로부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는 실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말하기인 대화 화법(이창덕 외, 2000 : 291)에서 집단적이고 공적인 말하기인 집단 화법(이창덕 외 : 363)으로 화법 교육의 중심을 옮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이다. 그리고 이것은 문산 화법 교육의 지향점인 집단 화법을 중시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제도인 학교에서 화법의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없다.

9) 발언한 것은 사고와 경험한 내용의 실체이고, 발언 행위는 그것의 口述的 표현 형태이다. 경험한 것은 경험한 내용의 구체적인 실체이고, 경청한 것은 그것을 청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수용한 것이다. 이 경청한 것이 청자로부터 새로운 화자가 되어 발언하고 또 발언하기 위한 화제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의 기본 바탕과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발언하고 경청한 것을 문자화 한 것이다.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효율적인 영역,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만 선별하여 교육한다고 하면, 화법 교육에서 그러한 부문이 바로 개인 演說과 집단 討論이다. 이것은 집단 말하기의 형태이지만, 학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욱 중시해야 할 분야이다. 그것은 화법 교육이 화법의 영역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문자 영역까지 진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국어교육의 지향점을 문화생산에 두었을 때, 당연한 歸着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바로 말하고 들은 것을 최종적으로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글로 바로 쓰기 보다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이 사고와 지식과 경험의 정돈을 거쳐서 글로 옮겨질 때에는 더욱 정제된 형태로 된다. 그것은 문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되고 나아가 문화생산의 실질적인 성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한 화법 교육의 방법이 바로 發言한 것과 傾聽한 것을 文字로 記錄하게 하여 整理하는 方法¹⁰⁾이다.

말하기 위해서 듣고, 읽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말한 것을 써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하면 문산 화법 교육이 완료된다. 文産 話法 교육의 방법은 말한 것을 정리해서 써보게 하는 데 요점이 있다. 事前 활동으로 듣기 활동과 읽기 활동-언어 기능의 면에서 보면-은 말하게 하는 것이 중심 활동이고, 이것을 써보는 것은 정리 활동으로 4 가지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이 된다. 결국은 읽고, 듣고, 말한 것을 써보게 함으로써 文化生産에 귀결된다.

10) 본고에서 사용하는 문화생산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문자문화재 생산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문화재의 생산은 문자를 통한 기록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화법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문자의 생산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화법을 통한 구어적 내용이 문자화되어 기록물로 존재할 때를 진정한 문화생산이라고 본다. 그러나 구술 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법에 의한 구두 문화재는 문자문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본다. 따라서 구술 문화로만 존재하는 것은 실용 화법에 속한다고 보며, 문자화로 전이될 때(적합한 내용과 가치를 지닌) 문화생산 화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화하는 과정에서는 작문의 성격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화법이 문자 文化化하는 과정에서 연유한다. 결국 문산 화법의 종착점은 작문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2. 演說 지도 방법

앞 절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화법의 지도 방법¹¹⁾을 기본으로 文産 화법의 여러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原稿를 사전에 작성하기와 작성한 원고를 假想 청중을 상대로 연설하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연설하기가 있고, 끝으로 연설한 것 文字化하기가 있다.

1) 연설 原稿 作成하기

원고를 작성하기는 演說이 미리 준비된 말하기이므로 그에 맞추어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물론 준비가 안 된 상태의 演說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를 작성하게 하여 演說을 지도하면 준비가 안 된 演說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설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演說하게 하면, 이러한 준비가 안 된 상태의 演說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원고를 작성하기는 일반적인 문장의 원고 작성과 다르다. 왜냐하면 연설에서 발언하기 위한 원고이므로 口頭 표현이나 現場性 높은 표현이 우선적으로 원고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假想 연설하기

작성된 원고를 보며 가상의 상태에서 발언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발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작성된 원고는 구두 표현에 적합한 상태로 작성된 원고이다. 이 원고를 자료로 가상의 청중과 청자를 예상하여 발언을 연습시킨다. 목소리의 크기도 조절하고, 필요한 속도를 측정하며 원고를 발언할 때의 準言語의 자질과 非言語的 자질을 동원하여 실제의 원고에는 나타나지 않는 발

11) 여기서는 앞의 각주 4번에서 언급한 것들과 달리 화법의 유형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실 현장에서 실제 지도하는 데 효율적인 일반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차시별로 교수/학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과 構案이 요구된다.

연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발언을 연습하게 한다. 이러한 연습을 통하여 작성된 원고를 손질하고 추가와 삭제를 통하여 실제 발언이 보다 정돈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수정하게 한다. 필요하면 녹음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언을 녹음하여 교정하게 하고, 표정이나 비언어적 몸짓을 사용하는 것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디오의 촬영과 그 이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연설하기

실제의 演說 상황에서 발언을 통하여 실제의 발언 능력을 실행하고 그걸 통하여 化용력을 향상시키게 한다. 모든 기능은 적절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언어적 기능도 마찬가지다. 化용력도 언어적 기능이므로 실제의 발언을 자주 적절하게 실행시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演說 발언은 다양한 演說 환경에서 반복적인 발언을 통하여 演說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이 그러하지만, 한 두 번의 演說 발언으로 演說 능력이 필요한 정도의 성취를 바로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연습과 지속적인 노력과 필요한 반복 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학생은 사회의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비적인 상태이므로 완벽한 능력을 얻고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 생활의 현장이다. 우리가 교육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學校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미래의 사회 생활을 위해 대비하는 곳이다. 그럼으로써 未熟한 상태의 학습자를 상대로 필요한 정도의 能熟한 능력을 신장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化법 교육은 그러한 化법 능력을 필요한 정도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실제 발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설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도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4) 연설한 것 文字化하기

연설하고 난 뒤에 문자로 기록하게 한다. 이것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는 연설한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실제 연설하면서

체험한 것을 반성할 수 있다. 이것은 연설의 적절한 피드백이 될 수 있어 다음의 연설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는 연설한 것의累加的인 기록은 적절한 첨삭을 가하면 문자 생산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연설이 문화생산을 위한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문화생산 화법의 핵심은 바로 이 단계의 지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 討論 지도 방법

토론 지도¹²⁾의 실천적 方策은 바람직한 토론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효율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에선 토론의 핵심적 논제인 쟁점을 분석하기, 쟁점에 필요한 자료 준비하기, 실제의 토론에 앞서 가상 토론하기, 실제의 토론장에서 토론하기와 토론한 것 文字化하기가 있다.

1) 爭點 분석하기

쟁점 분석하기는 토론의 論題가 정해지면 그 논제에 관해서 반대나 찬성의 의견을 정하게 된다. 그에 앞서 논제에 관해서 정확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쟁점 분석하기이다. 쟁점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그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논제의 쟁점에 대한 분석이 일차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쟁점에 관련된 지식을 동원하거나 경험을 살리고, 필요한 사고를 진행시켜 쟁점의 핵심을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쟁점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돈시킨다. 끝으로 정돈된 쟁점간의 관련성을 파악 요약하게 한다.

12) 각주 4번에서 제시한 論著에는 토론의 실제적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교수자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도하는 방법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附言하면, 한 개 인으로서 토론의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만, 초보 상태인 학습자나 미숙한 토론자를 대상으로 보다 향상된 토론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 교육적 방법과 지도 방책은 없다.

2) 資料 준비하기

쟁점이 정해지고 쟁점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그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立證하고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 論駁하기 위해 필요한 논증적 자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수집하는 것이 이 자료 준비하기이다. 자료 수집은 견해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공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상대방의 논박에 대비하여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고 필요한 만큼 준비하게 한다. 이것은 論題에서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을 說得하여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3) 假想 토론하기

가상으로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와 신뢰할 의견을 제시하여 내 주장을 내세워 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에 필요하다면 함께 연습할 상대자를 선택하여 함께 그러한 토론을 연습해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정확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쟁점에 맞는 주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와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가상 토론을 통하여 검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檢證의 가상 토론을 통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 실제의 토론에서 바람직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활동이다.

4) 討論하기

최종적으로 토론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실제의 토론을 준비한 대로 충실하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앞의 여러 단계에서 준비하고 연습한 것이 실제의 토론 상황에서 上位認知를 작용시켜 그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다음의 토론에서 이 보다 더 발전된 토론 능력으로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자주 실행하면서

토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토론을 자주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토론 능력의 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毎番의 토론을 점검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해결책을 도모하여 더욱 나은 토론이 점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토론하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의 하나이다. 현재의 토론에 치중하여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토론의 태도이지만, 토론이 一回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언제라도 이상적인 토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론할 때마다 스스로의 토론을 반추하게 하는 태도와 자세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5) 토론한 것 문자화하기

토론한 결과를 문자로 정리하여 기록하게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토론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록하면서 토론해야 한다. 토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나 다양한 형태의 원고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에 따라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는 반드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기도 하고, 준비한 내용 중에서도 삭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이 토론이 끝나면서 기록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消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고, 또 더 나은 토론이 되기 위해서 참여한 토론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화의 단계는 문화생산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도 과정이다. 이 과정이 바로 실용적 화법의 토론과 다른 文産화법의 토론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토론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이 토론의 기록물이 적절한 형태의 작문 활동을 거치면 실질적인 문자 생산의 문화재로 機能할 수 있게 된다.

VI. 結論

本攷는 현행 실용주의 중시의 화법 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화법 교육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가능한 대안으로 문화생산 지향의 국어과 교육으로부터 바람직한 화법 교육을 모색하였다. 그 모색의 결과로서 문화생산 화법 교육의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였고,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연설과 토론을 제안하여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과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하기’, ‘듣기’라는 명칭은 화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초등 국어과부터 국어과의 고유한 하위 영역 명칭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실시되고 있는 화법 교육은 실용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의사소통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화법 교육은 문화 중시의 21 세기의 시대적 조류로 보아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 대안을 문화생산의 관점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생산을 위한 화법교육은 실용 화법교육과 相生의 관계로서, 그 실용성을 넘어 문자의 기록으로 照應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원리로서 論理性, 批判性, 創意性을 제시하였다. 넷째, 문화생산 화법 교육의 새로운 방안으로 演說과 討論 교육을 제안하고, 그 실용적인 일반적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그것은 a. 경청하며 발언하기 b. 경험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c. 사고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d. 독서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e. 발언하고 경청한 것 文字化하기이다. 다섯째, 문화생산 화법 교육의 중심 활동으로 제안한 演說과 토론 교육의 실천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參考文獻

- 교육부(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_____(1998), 『고등학교 교육과정(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문환(1999), 『문화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方仁泰(1998), 「국어교육과 詩의 相互性」,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4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_____(1999), 「文化生産 국어교육」, 국어교육 제 100호,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 ____外(2000),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초등국어과교육』, 박이정.
- _____(2001a), 「文化生産 文字教育論」, 초등국어교육 제11호, 서울 교대 초등국어교육연구소.
- _____(2001b), 「文化生産 讀解教育論」, 韓國初等教育 제2권제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_____(2001c), 「文化生産 言語(音聲)教育의 效果的 方案」, 語文研究 제 110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_____(2001d), 「文化生産 文學教育論」,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9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_____(2002a), 『국어교육과 국문학』, 역락.
- _____(2002b), 「국어과 文化生産 교수/학습론」, 語文研究 제114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 _____(2002c), 「文化生産 作文教育論」,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백미숙 역(2000), 『스피치 핸드북』, 일빛.
- 이창덕·임철성·심영택·원진숙(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원훈의(1996), 『국어과 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 윤희원 역(1995), 『좋은 화법과 화법 지도』, 교육과학사
- 李光奎 외(1974), 『文化過程과 教育』, 教育出版社.
- 이옥련·민현식 외(1996),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숙명여대 출판부.
- 李庸周(1995), 『國語教育의 反省과 改革』,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용백·이주행(1992),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現代文學
임철성 역(1995),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외(2002), 『국어선생님, 듣기수업 어떻게 하십니까?』, 亦樂.
전영우(1987), 『國語話法論』, 集文堂.
——(1998), 『신국어화법론』, 태학사.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조동일(1997),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출판부.
조문제(1996), 『말하기·듣기 교수·학습의 이론과 방법』, 교학연구사.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2001), 『말하기듣기수업방법』, 박이정.

〈초록〉

國語科 話法 教育의 문제점과 새로운 方案

方 仁 泰

현행 실용주의 중시의 화법 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화법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문화생산 지향의 화법 교육으로서, 그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 그 방법으로서 연설과 토론을 제안하여 실제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첫째, 국어과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하기’, ‘듣기’라는 명칭은 화법으로 통일하여 초등 국어과부터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실시되고 있는 화법 교육은 실용성을 중시하여 개인의 의사소통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법 교육은 문화 중시의 21세기의 시대적 조류로 보아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 대안을 문화생산의 관점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생산을 위한 화법교육은 실용 화법교육과 相生의 관계로서, 그 실용성을 넘어 문자의 기록으로 照應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원리로서 論理性, 批判性, 創意性을 제시하였다. 넷째, 문화생산 화법 교육의 새로운 방안으로 演說과 討論 교육을 제안하고, 그 실용적인 일반적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그것은 a. 경청하며 발언하기 b. 경험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c. 사고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d. 독서한 것 발언하고 경청하기 e. 발언하고 경청한 것 文字化하기이다. 다섯째, 문화생산 화법 교육의 중심 활동으로 제안한 演說과 토론 교육의 실천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話法, 文化生産, 話用力, 實用性, 文字化, 演說, 討

〈Abstract〉

New direction of Speech Teaching to Culture Production

Bhang, Ihn-tae

Nowdays, It is a problem to understand that speech teaching is important to expand practical skil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o I proposed a new idea and methodology. It is a direction to culture production. Therefore I suggested the conception and principle of new speech teaching. And I discussed teaching methods of a public speech and a debate, and so on practical strategies to extend capability for culture production.

First, We have to use terminology, the 'speech' from primary to high school wholly. Second, 21th century is strengthened to cultural life for human beings. So an alternative plan is to seeking the direction to culture production. Third, speech teaching to culture production is beyond of the pragmatic speech teaching. And I proposed three principles, logicity, criticality, creativity for speech teaching's foundation. Forth, I discussed general program for common speech. These are : a. listening closely and speaking, b. speaking one's experience and listening closely, c. speaking one's thinking and listening closely, d. speaking one's reading and listening closely, e. writing one's speaking and close listening. Fifth, I presented practical teaching programs for a

public speech and debate to culture production.

【key word】 speech, culture production, speech capability, practicability, literal conversion, public speech, debate